카페

(긴글주의) 악성레인입니다. 최근 일에 대한 제 견해를 담습니다. | 자유 게시판

악성레인(juny****) https://cafe.naver.com/flatblack1/200406

- 우선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 사단이 일어난 시기에 공교롭게도 휴가 중 친구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고, 이제서야 집에 복귀했습니다. 또 당시 카페 분위기가 너무 달아오는 경향도 있어서 어느정도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의 장을 열고 싶었습니다. 일부 글에 한해서는 제가 제대로 글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유치한 부분도 있어서 사실 항변 하고싶은 의욕이 뚝 사라진 점도 시인합니다. 긴 글이 될 것 같네요.

사건 개요

- 저는 현재 FFBE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 게임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위치상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회사의 법률 담당입니다. 사내 내부적인 부분이라 다 밝히긴 어렵지만, 법무팀의 경우, 외주 계약의 형태로 국내 한 대형 로펌에게 일임 중입니다. 평소에도 담당 변호사들과 점심 식사를 자주하는 편이고, 술이 오가고 이런저런 업계 동향이나 특이할만한 부분에 대한 의례 일반적인 얘기를 주고 받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라 다 납득할만한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주제가 당연히 술안주 대화 내용이니까요. 가령, C라는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를 상대로 일반 게임 유저가 승소를 했다던지, D라는 게임 회사가 유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등등요.

- 그 과정에서 A라는 업체에서 소송 건을 진행 중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글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글 내용은 그냥 이게 전부인 수준으로 A 업체가 어딘지를 더 특정하는 정도였습니다. 글은 올리자마자 칼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에 사실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카페에 올린 글은 점심 술자리에서 들은 일종의 업계에서 돌고 도는 풍문 수준 정도로 올렸지만 내막은 다릅니다. 대략 1시간 가까이 긴 담화를 이어간 수준이었고, 그와 관련해 실제 소장을 접수한 회사 역시 해당 변호사들이 재직 중인 소속 로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확실치 않은 류머가 아닌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이었고, 지나가는 투로 듣고 흘리는 수준으로 들은 풍문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 많은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긴 토론을 이어간 이유는 이 역시 특이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회사는 유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송이 걸리는 90%는 다 유저가 게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입니다. 게임 회사가 유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제 회사만 해도 일반 유저를 상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모든 소송은 다 방어에 관한 법정 다툼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정도로는 설령 경찰이 불기소로 검찰에 올린다 해도 열에 열은 그냥 다 기각이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까이고, 기소 유예 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얻을건 별로 없는데 잃는 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문이라도 났다간 해당 게임 유저들로부터 큰 비판과 타격을 받게됩니다. 탄탄한 회사라면 모를까 오늘내일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통째로 흔들거릴만하게 지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즉,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 현실이 이러하니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저는 제 글이 칼삭을 당한 이유가 궁금했고, 사실 기분도 조금은 언짢았습니다. 언짢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카페 운영진 한 분께 개략적인 내막이 담긴 쪽지를 받았고, 잠시 후 삭제자로부터 직접 받은 쪽지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시간에는 한 운영진으로부터 직접 전화도 받았습니다. 카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그 특별대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네 맞습니다. 여러차례 연락 받아서 관련 사정을 들었습니다.

- 공교롭게도 그 소송 건이 우리 카페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민감할 수 있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고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큰 괴리감이었습니다. 쪽지 등 전후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연락을 받는 횟수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의혹은 확신으로 번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급한 피의자와 카페 운영진분들께서 언급한 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 세가지 신뢰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죄명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단순 폭행과 납치 감금 사이의 정도라면 비유가 될까요? 이 두 죄목을 동일하게 바라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장 접수 및 검토 중인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피의자가 '살해 위협에 관한 협박죄'라는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죄명을 언급했고, 카페 운영진들이 말한 분은 그냥 단순 '업무방해' 정도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 한 운영진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통해 확인까지 받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고소를 당한 유저에게 제가 한 번 걱정스러워 어드바이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제 고소를 당했다는 것. 제가 어드바이스 한 것이 당연히 기억하지요. 죄목을 끼워넣는다면 끽해봐야 '업무방해', '모욕죄'. '명예회손죄' 정도. 그러니 전화 통화 직후, 다른 인물이라고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 최초로 받았던 카페 운영진 분의 쪽지 내용이 두번째 이유였습니다. 내용인 즉, 저에게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재판이 이뤄지면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일일 테니 이걸 저는 '취하'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에게 들은 말은 취하는 커녕 '고소인이 지금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중으로 하루빨리 꼭 처벌을 바란다'였습니다. 이 역시 굉장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얘기를 듣고, 기겁을 했던지라 상식적으로 이걸 취하해 줄 리도 만무했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여겼던 두번째 이유였습니다.

- 변호사의 말로는 해당 사건이 벌써 강남 경찰서에 접수장이 들어가서 일사천리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큰 돈을 게임에 쓴 피의자가 해당 회사의 몇몇 임직원을 지목해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가했고, 살해 날짜 등 방법에 관해서도 이미 예고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홧김에 쓴 욕설 메일로 치부하기엔 그 정도와 횟수가 예사롭지 않았고, 구체적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지목한 날 공교롭게도 그 회사 행사가 잡혀 있는데, 인명 피해를 우려해 강행 여부조차 현재 심각하게 논의 중에 있어 그 안에 일이 해결되는 않을 시 최악의 경우, 행사 취소까지도 고려해야할 정도이니 시급을 요한다고 들었습니다. 살해 대상으로 지목을 받은 일부 여성 임직원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어 신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시 회사 퇴사까지도 고민한다는 등 누가 들어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홍보를 위해 그간 수차례 행사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하였기에 지목했던 사람들의 용모 역시 공개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여 해당 로펌 역시 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어 아는 인맥까지 동원해 빠르게 진행되도록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카페 활동을 그간 저도 해왔으니 소송 중인 해당 유저님에 관해서도 띄엄띄엄 듣거나 보는게 있기 마련. 그 유저님의 경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어렴풋이 언젠가 저 멀리 지방에 사신다는 것을 들었던거 같았습니다.(정모 때 멀리서 일찍 올라왔다는 후기

글) 그런데 사건이 배정된 장소가 '강남경찰서'라고 합니다. 깊게 생각했던 것 까진 아니었지만, 저 멀리 경상도나 이런 곳 사는 사람에게 강남 경찰서라니요. 이것 역시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보낸사람
받은시간 18-08-03 [16:46] 차단 | 신고

댓글로 쓸 내용이었으면 지워달라 요청했겠죠

지금 그 소송이란게

공략카페글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슈화되서 좋을게 단 1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댓글로 이유를 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올리신 글도 아주 불리할수 있어요

바로 지웠는데도 벌써부터 화제가 돼기 시작하잔아요

저 글 제가 지웠고요

- 하나라면 모르되, 둘,셋이 중첩됐다 여기니 운영진들이 말한 그 전후사정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이걸 누가 동일인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사실 그 뻘글을 올린 이유도 이런 게임 업계 현실이 좀 씁쓸해서 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저는 딴 사람 얘기를 했던건데, 지레 짐작하고 그 사람일이라 확정 짓고, 위처럼 나로 인해 일이 틀어질 수도 있게 됐다고 제딴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라는 게임 회사가 하나만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임일 수도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도 당혹스러운 일인데, 이걸 기반으로 저를 원망하는 기색까지 보이니 제 딴에는 솔직히 기분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던겁니다. 그리고 그런 피의자가 우리 카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저에겐 모욕이었습니다.

- 제가 그런 댓글을 쓴 적이 있었지요. 어찌 됐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데, 양해와 사과 정도가 먼저 수반돼야 이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저도 카페 사람입니다. 만약 동일 인물이었다고 여겼다면, 그래도 열 번 양보해서 사정이 그러하니 운영진 입장에서 그러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 정도로 저 경우 없고, 야박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팩트는 저는 다른 사건을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 그 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운영진이 그를 동일 인물이라 여긴 것인지도 의아스럽고, 최소한 기초적인 정보 정도는 알아보고, 그게 맞으면 제게 따지던 욕을 하던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엄한 생사람 잡아 무통보로 삭제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경우가 없을 수가 있나하는 생각에 제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여 쪽지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받는사람
보낸시간 18-08-03 [17:08]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혀 납득도, 동의도 어렵네요. 뭐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지만, 더운 날씨 탓인지 이런 쪽지 조차 귀찮기도 하고 더이상 얘기해봐야 소모적인 언쟁이 될 것같아 이쯤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 정도에 어긋남 없이 사정과 양해를 구하며 제게 얘기했더라면, 저 역시 '제 판단 하에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걱정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그 분도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그게 그 사건일리 없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보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사람 곤혹스럽게 만드는 식으로 쪽지 보내니 저도 진짜 그 더운 날씨 탓인지, 열폭에서 설명해줄 생각도 뚝 떨어졌고, 말 해봐야 입만 아플 것이라 여겨 저렇게 보냈던 것.

-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냥 굳이 설명할 필요도 제게 없고, 느낌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뭐 날도 더운데 술이나 먹고 놀자.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나가려던 찰나에 카페장님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공지사항'을 읽게 됐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려웠고, 두 가지에 관해서는 매우 화가 나버렸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전후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다면' 이라는 대목. 그때까지만 해도 전화로 사정을 전해 듣기 전이었고, 아는 거라곤 전 저 단편적인 쪽지가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제게 얘기해줬다고 다 사정을 얘기했는데 납득을 못하는 쫌생이로 만드는지 당최 이해가 안됐습니다. 충분한 사정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었기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얘기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노력은 커녕, 핀잔만 먹었다고 생각해서 불쾌감에 대꾸도 안한 제 심정은 단 1%도 고려치 않은 멘트.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 화가 난 대목은 두가지였습니다. 첫번째 부분은 맨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유보) 두번째 대목은 맨 마지막, "사람 하나 살리는게 소중합

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제 글이 사람 하나를 죽이는 글이었다로 바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든 생각은 정말 운영진이라는 분들은 소통이라는 걸 할 생각도 없이 말이라고 다 막 쏟아내는구나라는 생각. 두번째 생각은 저를 기만, 혹은 욕보이려고 썼구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를 조롱하는거라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인 그 카페 분이 고소를 당했다면, '업무 방해'나 '모욕' '명예훼손'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또 그렇게 들었구요. 제 회사에서 소송 업무만 수십 차례를 진행했고, 비슷한 사례로 자문을 구한 게 수도 없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해당 죄에 한해서는 게임사와 관련해 국내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배째라고 버티고 있으면, 기각이나 증거불충분이 되고, 그냥 겁주려는 식이면 어차피 소송 걸어봐야 백 번 게임사가 손해이니 바보가 아닌 담에야 취하할 것이 자명한 일. 게다가 앞서 운영진으로부터 취하로 해석해도 될 만큼의 사정도 이미 전해들은 상태. 어차피 아무 탈 없이 끝날 것임이 명백한 의미 없는 소송인데, 공지사항에 떡하니 사람 하나를 살리겠다는 말을 하시니, 이는 저를 기만하거나 카페 유저들 상대로 의도적으로 오버스럽게 과장스러운 말을 해 저를 코너로 몰려고 하는구나, 또는 명색에 게임사 임원으로 법률 담당을 맡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이를 모를 리도 없다고 판단, 그냥 조롱하려는 의도 등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더군요. 정말 매우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업무 방해'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지 당최 이해도 안됐습니다. 가령, 금연 구역에서 담배 폈다고 경범죄 들어 벌금 몇만원 내야할 것을 제 글로 인해 한 3년 구속 수감하게 됐다는 수준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카페 사람들 대상으로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끔 처리 중 이라는걸 포장하는 취지로 공지 날리는건 제 영역도 아니니 상관없는데, 희생양으로 제가 된 게 너무 불쾌했고, 명백하게 해당 글의 저격 대상이 저인걸 모든 카페 분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카페 분들이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는 이유로 저를 깎아내리려고 저 표현을 쓴 것이라 여겨 아주 불순했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페장님에 찍힌듯한 느낌을 최근 지울 수가 없던 때라 이참에 한 번 밟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쓴 글이 아니었나까지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카페장을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도 섭섭함이 컸습니다. 처음 댓글 두개를 쓰게 된 계기. 뭐 비밀스러운 얘기라 유지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제가 먼저 이 얘기 꺼내지 못한다는 걸 노려 저렇게 쓴 게 분명하니, 저도 비슷하게 우회적으로 폄하하고자 '비밀스러우니 그냥 난 듣지도 않겠다' 이런 의도로 댓글을 썼던거 같군요.

- 추후 저녁 시간에 다른 운영진으로부터 전화 통화로 한차례 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전화 받기가 싫었습니다. 마침 지인들과 한창 술자리였던것도 있었지만 우선 기분은 이미 상할대로 상했고, 이미 삭제자에게 받은 쪽지로 살짝에 머물렀던 그냥 약간의 불쾌감은 공지사항 글로인해 기억 속에 사라진지 오래. 전화를 건 운영진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통화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끊으려고했는데, 3분 내로 얘기하겠다고해서 그냥 대충 얘기 듣고, 삭제자에 관한 토로만 몇마디 언급하고 끊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야 할 것 같고, 술도 좀 들어간 상태라 여기서 카페장님의 공지사항 얘기를 꺼내봐야 어린 제가 띠동갑 형님 욕 하는 몰상식한 사람 되는게 다라 스스로 형편없는 놈이 되는거 같아 얘기 안꺼냈습니다.

- 다만, 이후로도 공지사항이 보일 때 마다 불쾌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조롱하는 기분. 차라리 눈에 안보이면 좋겠는데, 내려달라고 했는데 내려주지도, 해명도 안하니 짜증이 자꾸 나더군요. 또 카페에 공략글을 올리는걸 좋아했는데, 이러면 카페 접속을 해야하는데, 자꾸 PC 상단에 떡하니 그 글이 걸리니 잊을만하면 부아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댓글 하나 더 적었으나 그것 조차 무대응. 아예 안보기 위해 공략글을 다른 데에 올려볼까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여기까지가 요 근래 사건 개요의 전부.

이후, 그리고 의문

- 휴가 기간 중,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제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사단이 났더군요. 우선 해당 글을 쓴 분으로 저의 자작극을 의심하는 카페장님의 댓글(그 사람과 글 스타일이 유사하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저 아닙니다. 저는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고, 휴가 기간이라 카페 글은 그냥 띄엄띄엄 접속하는 정도. (모바일로 접속하면 공지사항 글 안보입니다)

- 여기저기 난리가 났고, 개중에는 저를 탓하거나, 나가라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던지, 실망스럽다니 등등. 게다가 평소 존경했던 오랜 프랜님이자 카페 운영진 중 한 분이 운영진을 내려놓는 등. 도저히 간단 명료한 수준으로는 얘기해서는 안될 정도로 코너를 몰린 상황. 비밀 유지를 원했던 위에 해당 소송 중인 카페 분의 얘기도 이제는 안꺼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안꺼내고서는 도저히 이 상황의 매듭을 지을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최소한 이정도 선에서 언급을 해야 이 글을 쓸 수가 있어 부득이하게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 곰곰히 생각해보니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만약 제 믿음이 맞다면 언급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섰습니다. (어차피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방해 죄는 그냥 기각될 것이기 때문) 상황이 이렇게 됐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일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조각들을 하나로 취합해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모순이 하나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의문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카페 운영진 분들께 정중히 여쭙는 내용입니다.

- 저는 그 동안 제가 변호사에 들은 업계 소송 얘기의 주인공이 카페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고소된 죄명도 다르고, 접수된 지역도 너무 멀고, 이미 취하로 접어든 상태인 반면, 이쪽은 언급한 그날까지도 취하에 대해 일절 생각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 상식적으로 취하할 수준도 결코 아니었고, 설령 취하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아마 주제는 여전히 또 이런식으로 끝나는구나가 됐을겁니다.(이 부분에 대한 뜻은 아래 상세히 적어놓겠습니다.)

-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두 사람이 동일인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은 카페 운영진들이 제게 항상 '모든 전후사정을 다 설명했음에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중'이라고 피력. 그 발언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전후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여겼고, 그 선에서만 머리를 굴렸던거지요. 또 개인적으로 매우 클린하다고 여기는 이 카페에 그 같은 수준 이하의 범법 행위자가 있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해도 카페 운영진들이 그런 사람을 변호할 리도 없다는 일반적인 상식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이건 보호를 해주는 선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 그래서 혹시 제게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진 분들 말대로 그 사람이 제가 들은 그 사람과 동일인이 맞고, 실제로는 '업무 방해'가 아니라, 살인 등을 경고한 '협박죄'가 맞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카페를 폐쇄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말도 들리고, 공지사항에 사람 하나를 살리는 길이라도 말한 것도 실제로는 저를 조롱하려는게 아니고, 진짜였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

니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카페장님은 한가지 거짓말과,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게 된겁니다.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셨거나, 교묘하게 노출돼도 되는 정도로 일부분에 한정해서 한 말이 되니까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게 그거 아니냐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다던지요. 가령, 협박죄만 걸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끼우는 과정에서 업무 방해 같은 것도 다 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거니까요. 뭐가 됐던 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 말하셨지만 실제로는 제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설명이 아니라는 의미.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애초부터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오류를 기반으로 확신을 한 것이니,오해는 심화되고, 감정의 골은 더 패일 수 밖에 없겠지요.

- 제가 이 글에 관련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언급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동일인이 아니다. 즉, 제게 얘기한대로 카페 회원 분이 단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태라면, 이같은 분위기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또 같은 카페인의 한 사람으로써 제 회사가 그 카페분의 변호를 직접 맡겠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 내막에 관해서는 업체가 할만한 멍청한 짓을 했으니, 유저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라는 허울에 기죽을 필요 없고, 이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A업체의 승소률은 '제로'입니다. 아마 카페에 변호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 수긍하실 겁니다. 사실 굳이 변호도 딱히 필요 없다 여겨질 정도라 여겨집니다만, 여기에 대형 로펌의 힘을 얻는다면 명예는 명예대로 유지되고 실리까지 얻으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먹히지도 않을 '업무 방해' 따위를 죄목으로 끌여당겼다는 것 역시 그냥 겁주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런거에 취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굴해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회사에서 계약한 로펌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100% 승소률로 제 회사 관련 소송을 해왔고, 국내 로펌계에서는 몇 안되게 해외 소송 전담팀까지 운영하는 아주 큰 로펌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협박에 관한 소를 제기한 회사 역시 해외 기업입니다. 그 해당 국가 소송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이 로펌이 특화된 수준으로 해외변호팀을 운영 중이고, 그 외국 게임업체 역시 여기가 아니면 이길 수도 없어서 이곳에 의뢰한 것. 회사 임원으로써 제가 정식으로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 반대로 만약 동일인이다라고 한다면 합당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경우,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한 사건의 고소인-피고소인을 한 로펌에서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의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와드릴 생각이 쥐꼽만치도 없으며, 오히려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왜 변호할 마음이 쥐꼬리만치도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말하기 전에, 제 경험담을 먼저 좀 꺼내볼까 합니다. 예전에 회사의 CS팀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 전형에 지원한 한 면접자가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봤더니 딱히 잘하는 것도, 이렇다할 재주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잘 할 수 있는지 확신을 못하겠다". 당차게 확신을 하길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면접자가 하는 말이,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부양해야하는 홀어머니가 계시다. 그래서 저는 성실히 꼭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 사실 전문 지식을 요하는 자리도 아니고, 안타까운 생각과 솔직한 심정도 믿음으로 승화돼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 CS팀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문의 등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FFBE로 치자면 인게임 내 게임 문의하기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혹시 게임업계 내 CS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한 번 정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사람들이 겪는 언어폭력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입장 바꿔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CS팀 직원으로 채용했던 그 여직원이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이 개XXX년아 니 구X멍을 씹X을 내버릴거다" "니들 사기 친거 내 돈을 보상안해주면 알아서해라. 이글을 보는 니가 여자면 걸X를 만들것이고, 남자면 오늘부터 칼X 안맞게끔 조심하면서 다녀야할거다".. 등등등등 뭐 사례를 꼽자면 수도 없고, 차마 이런 카페에 올리지를 못해 많이 순화했는데, 정말 도를 넘어선 수준의 메일이나 전화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메일을 하루에 백개씩 보거나 듣는다고 하면, 결코 과함이 없을 겁니다.

- 매출을 목표로 운영을 해야하다보니 게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큰 출혈을 받는 유저는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FFBE만 해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을 다 하신 사람들만 모이셨으니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이나 모욕 등이 욕설을 넘어 '언어 살인'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카페 분들처럼 클린하게 문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카페 분들을 보면 제가 아는 그 게임 유저들이 모인 공간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막상 일선에서 경험하다보니 그 정도가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저도 솔직히 일을 하고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카페가 매우 클린하고 호감이 갔던 이유 역시,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 위에 언급한 직원은 우울증과 정신적 질환까지 얻어 정신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후에야 들었습니다. 회사 임원으로써 너무 가슴 아팠던 일이었고, 당시에 장기 휴가 등을 제안하며 심적으로 충분히 상처를 치유한 이후에 사로 복귀하는건 어떻겠냐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다시 되돌아와도 열심히 일할 자신이 도저히 없다는 말로 결국 회사를 나섰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에 해당되는 사례였는데, 직후에 연락도 안받았던 상태. 이 직원 분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직원 분은 유저로부터 어떻게 알아냈는지 예전 살던 집을 알아내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메일의 영문명 주소를 알고 어떻게 구글링을 한 것 같은데, 이후로 전직원들의 이메일을 전에 쓰지 않던 다른 음절로 1명의 예외없이 모두 교체했던 일도 있습니다. 예전에 카페에 살짝 제 회사에 관한 얘기를 꺼낸게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직원 성함이 아니라 닉네임을 만들어 닉네임으로 부른다는 얘기. 그 역시 겉으로는 그냥 젊은 IT회사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신분 노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도 일부 있었습니다. 제 회사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라 뽑는 직원도 많고, 그마만큼 나가는 직원도 많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다른 팀들은 주로 더 규모있는 회사로 잘되서 나가는 케이스가 많아 서로 축하해주며 보내는 반면, 유독 이 CS팀 만큼은 이직이 아니라 못버티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 회사를 나간 CS팀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 사실 개인적으로 참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이런 업무 환경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제 개인에게도 참 화가 났구요. 실제 몇차례 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장을 접수하려고 법무담당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녀석들에게 뭔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제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도 있고, 실제 승소할 확률도 낮았고, 또 병행해야하는 중요한 소송에 전력투구를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 등등 이유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국내 같은 경우 게임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기존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게임 쪽은 사례가 적다보니 승소 확률 판례도 그만큼 적고, 이기기는 더 어려운 구조.

-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장난이다." 그냥 화가 나서 홧김에 뭐 죽이겠다니 뭐 이런말 다 하지 않나.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간혹, 술마시다가 별 생각 없이 내 던진 말에 상대방이 상처받는 경우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뱉은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으니 니가 오버하는거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문의를 처리하는 정신 노동 직업입니다. 저 직원분이 멘탈이 약해서 저런거라고 치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회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채용하고 싶네요. 가뜩이나 직원들 많이 나가서 죽을 지경입니다. 게임 회사 직원들도 다같이 사랑받아 마땅할 누군가의 자식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괜히 욕을 하겠냐. 니네 서비스하는 꼬라지를 보면 욕먹는건 당연한거다. 사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참 면목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가령 CS팀의 응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회사가 하나의 게임만 서비스할 리는 없겠지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각 게임마다 자체로 응대팀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우리 회사로 한정 짓자면, 6~7개에 해당되는 각 게임의 A/S 관련 질의를 CS팀에서 모두 총괄합니다. 당연히 분류해서 각 팀에 전달하죠. CS팀 직원은 질의 받은 내용을 바로 해결해주고 싶어도 해당 팀에서 내려주지 않는 한 해줄 수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해당 팀 역시 유저 응대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서비스부터 이루 말할 것 없이 많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의한 메일을 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급한 성격의 분들은 뭐하느라 늦냐고 하나둘 욕설을 담아 또 메일이 날라오고 악순환은 이어집니다. 이게 중첩되다보니 나중에 메일 봐도 읽기도 싫어서 일부러 확인을 안하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업무 태만으로 쓴소리 해야맞는걸까요? 직장인들이 많으시니 다 아실겁니다. 말처럼 쉽게 그렇게 되는게 하나도 없음을요. 최근에 한 번 구미에 폭탄 메일을 카페 차원에서 돌린 일이 있었지요? 사실 분위기가 너무 고조돼 차마 말은 못했지만,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매사 자기는 어떤 일이든 한치의 오차 없이 다 되는대로 돼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이 역시 제 회사로 모시고 싶네요. 그런 우수한 인재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2. 함부러 친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 한때 같이 나누던 소주잔도
- 지 입맛에 안맞으면 정색 떨어지는 곳이더군요
- 어느정도 마이~컸다 느껴지니 '독립'시켜줘도 될것 같습니다
- 제발 같이 다 나가줬으면...
- 헝앱이 그렇게 좋다던데...

- 카페장님의 글을 봤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기 때문.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인이라면 이런 제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봐 주신 적은, 혹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 카페에 제가 게임회사 부사장이라는걸 모르는 운영진은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술만 한두잔 기울이면 다 지인이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정도의 이야기는 서로 공유하고 공감해야하는거 아닐련지요. 그리고 적어도 저를 지인으로 생각했다면, 저런 언어 살인자 유형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함구한다던지, 숨겼다던지, 이런 일을 하셔서도 안된다고 생각되는군요.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의구심은 있지만 동일인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 중.

보낸사람
받은시간 18-08-05 [16:23] 차단 | 신고

안녕하세요 악성레인님 모르는 분이지만 평소 님 글에서 너무 많은 걸 얻어가기에 감 ... 해당 카페 운영진이 악레님께 하는 행동들은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당해보이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악레님께 뭔가 감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구요. 뭔가 저번 전체 모임 때 악레님과 운영진간 안좋은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악레님 글에 딴지 걸고 저격(?)하더군요. 운영진 중에 특히 장인 분이 더 그런 것 같구요. 악레님 글처럼 깊이 있는 분석글 보려고 이 카페에 들어오는데 뽐뿌(?)넣는다고 자제해달라는 글을 봤을때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

-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지인은 커녕, 카페장님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알게모르게 따가운 시선을 피부로 받아왔던 터라 더 어려워했던게 아닌지 모르겠군요. 다만,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였으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간 말을 안해서 그렇지, 알게모르게 카페 유저님들에게 좋은 덕담 메시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좋은 글 감사하다는 말부터, 개중이는 이처럼 응원의 글도 있었고요. 위로하는 쪽지를 받은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 카페가 참 좋은 이유) 제가 이런거에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 그간 모로쇠로 답장도 안보내고 일관하긴 했지만, 적어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건 아니라는걸 확인하는 계기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제가 지인이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참 당혹스럽군요. 지인이었는 줄도 오늘에야 알았는데, 난데없이 그것도 '옛' 지인까지 되버렸네요. 카페장님, 가끔은 표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처럼 우둔한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제로 저를 진심으로 지인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다른 분들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주제넘게 끄적여봅니다. (p.s 해당 메시지 스샷은 당사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올린건 아닙니다. 그간 받았던거 다 모아서 올리는 것도 웃기고, 그냥 가장 근래에 받은거 한장 캡쳐 뜨긴 떴는데, 혹시 당사자분이 이 내용이 불편하시다면 스샷은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크게 필요한 부분도 아니라 여기고요.)

- 가끔 운영진 분들이 프로불편러에 대해 '주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냉혹한 철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런 댓글로 관심 받으려고 하는 종자들은, 저런 욕설로 누군가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프로불편러 들에게는 개인의 '주관'을 이유로 우리 기준에 의해 그냥 강퇴시키는걸 합리화 하시면서 계획 살해를 예고하는 정도의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피의자는 오히려 무한한 애정으로 보호하려한다면, 그 '주관적' 이라는 기준은 저의를 의심할만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 의견이 아닌 13인? 14인의 운영진의 확일화된 결론이라 말씀하신걸 본적이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 피고소인이 그 13인의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사실 지금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카페 운영진 말대로 제가 말한 사람이 명백하게 동일인이라 하시는데, 정말 동일인이 맞다면 분명 제 회사 법무를 담당하는 로펌 관계자가 말한 고소 사유가 맞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여지껏 저런 사람과 한 공간(카페)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뜻이 되니 이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믿자니 그 양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를 상대로 소설을 쓰려 했는지 그럴만한 이유가 없으니 이 역시 안믿을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말을 또 믿자니, 전후사정을 다 설명하고도 이해를 못한다는 운영진 분들의 말이 역설적이게도 거짓말(전후 사정을 얘기하지 않은)이 되는 셈이니, 이 역시 합리적 의심이 들어 개인적으로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 사실 당시 변호사와 이 사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게임업계의 현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 사실 국내에 게임 업계의 소송이 주되게 이뤄진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있는 부분은 주로 대법원 등 예전 판례를 참고삼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례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언어 살인이나 인격 모독 등 게임사가 이 같은 이유로 승소한 사례도 전무하다시피해 법의 잣대로도 이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하지 못함을 동종업계의 1인으로써 그간 무겁게 여겼던 부분이었습니다. 제 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그간 울겨겨자먹기 식으로 항상 분을 식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주는 회사의 일처리에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다는 그 A회사를 개인적으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회사이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격하게 환영했고 또 응원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뭔가 유의미한 결실을 얻어 뭔가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꼭 끝까지 가서 승소했으면 좋겠다고 덕담까지 했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별 생각없이 던진 돌덩어리였다지만, 돌은 맞은 사람은 지금 피를 뚝뚝 흘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릴 때가 됐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욕설 메일 정도가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여러 부분에서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자료를 여러 개 확보한 상태라 기대할만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게임사가 유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로도 특이할만해서 업계에서 지금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중인데, 심지어 해볼만하다고 하니 기대가 아니될 수 있겠는지요. 이런저런 제 회사에 대한 언어 살인에 대한 열악함이라던지, 동종 업계의 애로사항, 등등 얘기가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곱씹어보니 참 곤혹스럽네요.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날 응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제가 아는 카페 동일 인물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카페장님께서 올린 공지사항에 "이해를 해야할 때도 있다. 이런건 사회 생활을 통해 깨우치게 된다"라는 멘트에 참 씁쓸함을 감출 수 없더군요. 이걸 어떻게 사회생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건지요. 일선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사정을 알긴 알고 과연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이정도 환경을 제공해줄 수 밖에 없는 제 그릇이 부족하다는 얘기인지. 한편으로는 제 개인이 아니라 80여명의 직원과 함께 하고 있는 임원의 입장으로써 우리 회사 임직원을 폄하하는 수준으로까지 받아들여져 개인적으로 쉽게 참을 수가 없었더군요. 위에 공지사항에서 두가지 분개했던 멘트 중 나중에 말하겠다고 한 첫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지사항 글에 그런 멘트를 안썼으면 어땠을까, 나아가서 아예 그 공지사항 글을 안쓰셨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을 표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글을 처음 써보는 듯 하네요. 아직까지도 사실 의혹이 전부라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군요. 다만, 다시 언급하지만 제게 다 말한게 전부라면 카페장님께서 카페를 정리해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으시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네요. 제게 말씀하신 것 처럼 단순 '업무 방해'에 관한 소송에 한해서는 부족하지만, 사비를 털어서라도 제 회사에서 무료 법률 보호를 보증할 것이고 별탈 없이 해결될 겁니다. 오히려 취하해 달라고 고개를 숙일 일도 없으니, 모로 보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것이라 아직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반대라면 송구스럽지만 사실 저는 응원은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개 카페의 회원이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런 비인격적인 환경 속에 근무하고 있는 반대편의 서식지(게임업계)도 이미 제 안으로 굽혀있는 나머지 팔 한쪽입니다. 아울러, 과연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게 과연 13,000명을 대표하는 카페 운영진들이 응당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긋남이 없는 정도의 결정이라고 말하신다면, 전 납득할 수 없고, 13명이 아니라 카페 13,000명의 의견으로 범주를 넓힌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최근 근래에 비롯된 해프닝에 대해서는 불쾌하셨다면 저 역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알 길이 없으셨을테니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하신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다만, 카페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제가 카페분들을 선동하려하는거라던지, 악의적인 음해 시도라던지, 이런 불순한 의도로 댓글을 썼던 것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싶네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러이러한 제 내적 심경이 가미된 결과, 공지사항 글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단지 그 뿐이었습니다.

- 비밀 유지를 우선으로 하시는 듯 싶어 이 글이 삭제되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제 입장으로써는 이런 해명글을 안쓸 수가 없다는 점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시는건 카페장님 고유의 권한이니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긴 글을 쓰는 동안의 이 사람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답을 하는건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지난 이틀간 카페장님을 비롯해 많은 운영진 분들의 개인 의견을 카페원들이 충분히 다 들을만한 시간을 제공하셨으니, 이분들에게 제 변론을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시고 삭제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일언지하에 삭제를 하셔야한다면, 저도 제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공식 카페에 동일한 내용의 이 글을 올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빈정대는 어투가 아니라, 최소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해명 글만 적어주신다면, 확인 후 이 글도 제가 적당한 시점에 자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나가길 원하신다 하니 적절하게 매듭이 지어졌다 판단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파판 공략글은 말씀처럼 헝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 악성레인 올림